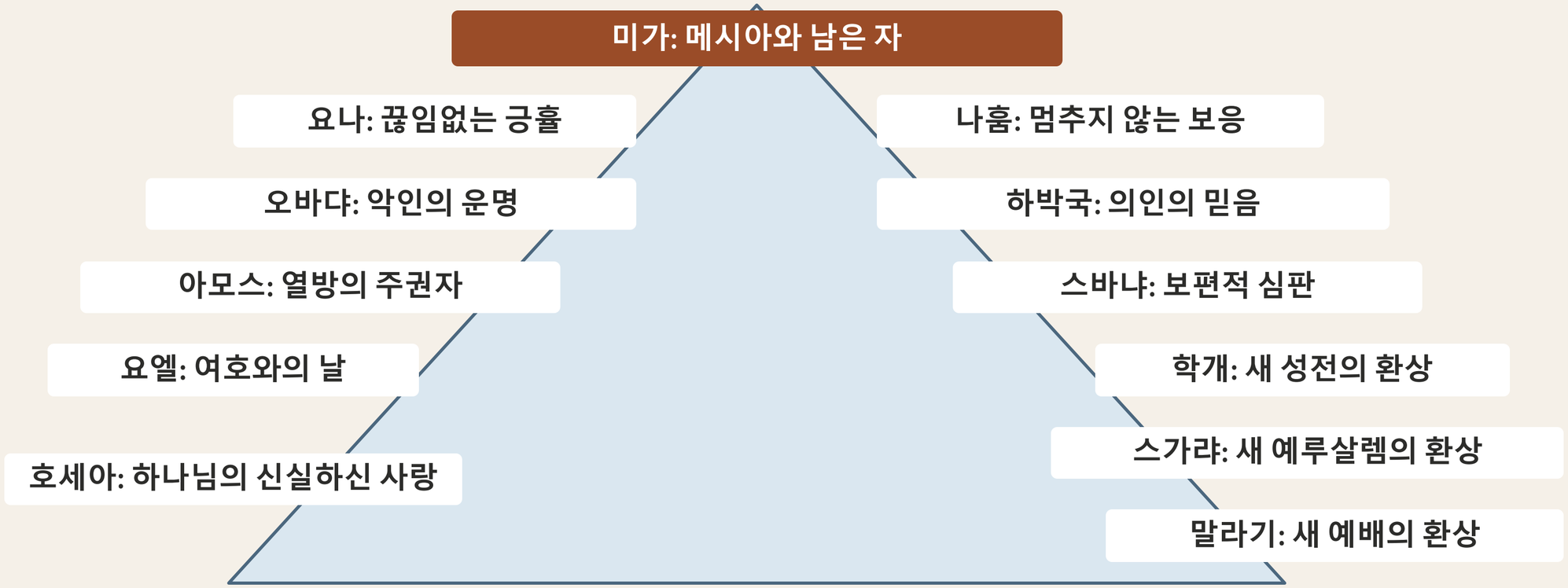
소선지서의 주제들

열두 소선지서는 메시아와 남은 자에 대한 미가의 중심 환상으로 절정에 이르는 주제별 짝을 이룹니다.



앗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포로

기원전 722년, 앗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 전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사마리아에는 이방 민족들을 정착시켰습니다.

- 신앗수르 제국
- 유다 왕국
- 수도
- 도시 또는 성읍
-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 이스라엘에 재정착한 이방 민족들



기원전 722년경 국경, 표준 성경 지도 기준, 고대 국경선은 대략적인 표기임. 지명: OpenBible.info (CC BY 4.0). 해안선, 호수 및 강: Natural Earth.

니느웨 성읍

니느웨의 요새 성벽과 수상 방어망은 홍수가 성읍을 집어삼켰을 때 역설적이게도 파멸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훔의 예언 · 기원전 7세기

니느웨 성읍

니느웨는 7.5마일의 거대한 성벽과 15개의 성문, 깊은 해자로 보호받는 고대 요새였습니다. 이 성읍은 안보를 위해 힛데겔강과 코스르강에 의존했습니다.

파멸로 바뀐 방어망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나훔 2:6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훔 1:8 · 홍수로 무너진 수문

김 목사: 앗수르가 신뢰했던 방어 체계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훔 1:2 · 개역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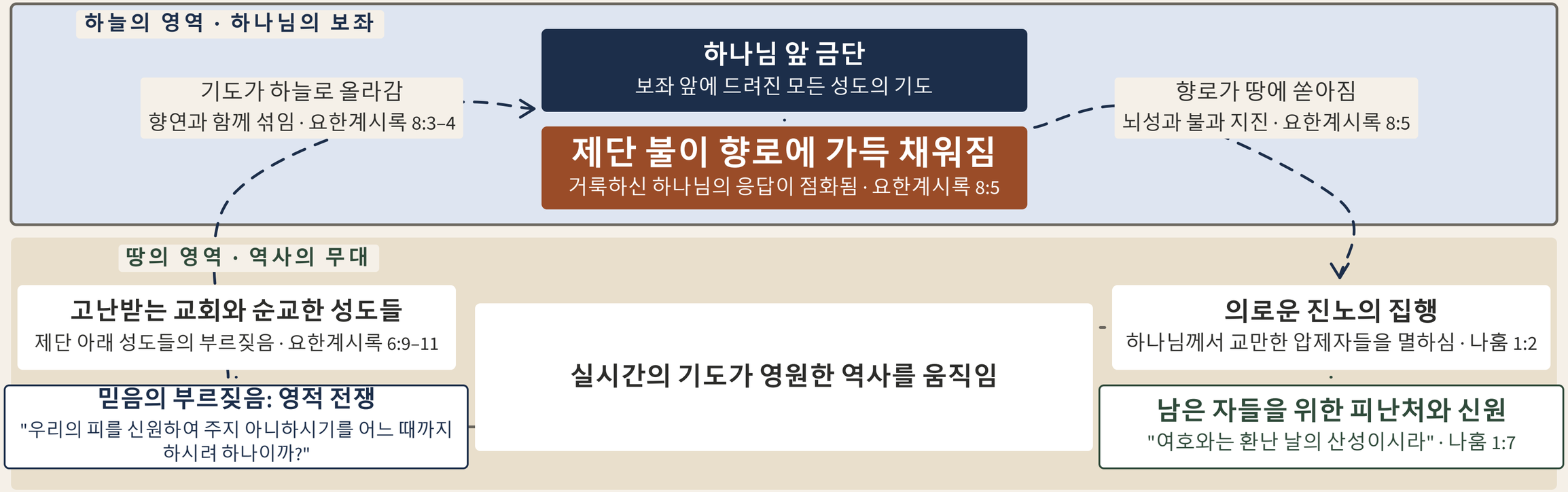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7 · 개역한글

소선지서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정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압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땅으로 쏟아집니다.



나훔 1:2 · 나훔 1:7 · 요한계시록 6:9–11 · 요한계시록 8:3–5

요나와 나훔 비교

한 세기에 걸쳐, 하나님은 변함없는 두 가지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요나서의 끊임없는 긍휼과 나훔서의 의로운 공의입니다.

요나 (주전 약 760년경)	나훔 (주전 약 660년경)
니느웨가 경고를 받음	니느웨가 확실한 심판을 받음
회개로의 부르심	파멸의 선고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물)
이스라엘의 낮아짐	이스라엘의 신원(원수 갚아 주심)
니느웨가 악에서 돌이킴	니느웨가 다시 악으로 돌아감
심판이 유예됨	심판이 집행됨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은 보복하심
질문으로 끝남: 은혜	질문으로 끝남: 공의

요나 4:11 · 나훔 1:2 · 나훔 1:7 · 나훔 3:19

소선지서

은혜와 공의의 질문

요나는 은혜의 질문으로 끝나고 나훔은 공의의 질문으로 끝나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의로운 신원의 균형을 이룹니다.

요나

은혜의 질문

- 100년 앞서 예언함
- 왕부터 백성까지 니느웨가 회개함
- 의로운 심판이 유예됨
-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함

4:11 은혜의 질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셔야 하겠는가?

나훔

공의의 질문

- 100년 뒤에 예언함
- 니느웨가 끝없는 잔학함으로 되돌아감
- 의로운 심판이 집행됨
-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를 계시함

3:19 공의의 질문: 그 끝없는 악행을 겪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7세기 선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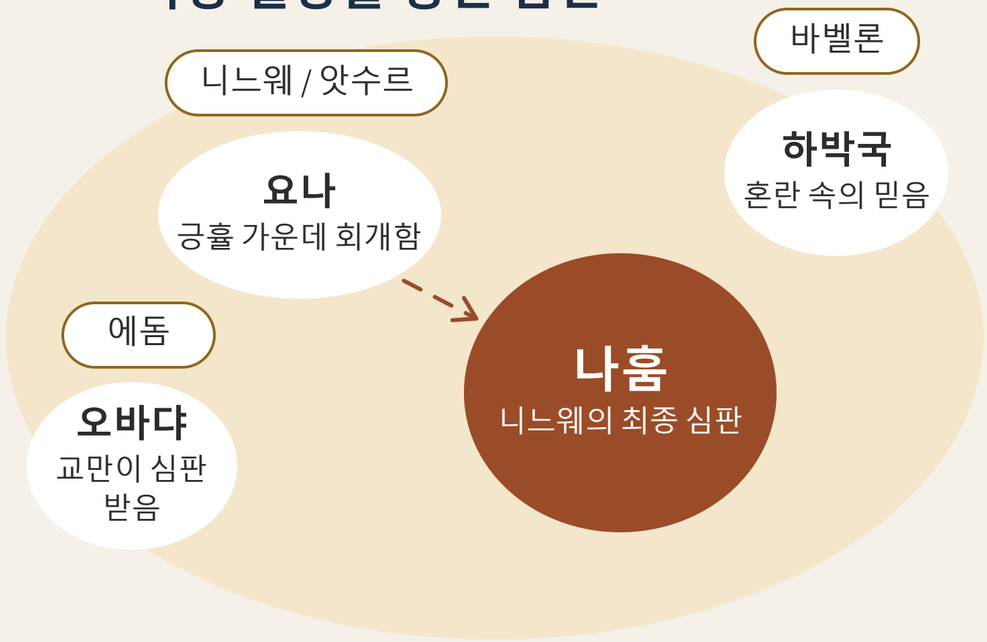
급변하는 세계 열강 속에서, 7세기 선지자들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고 그분의 주권적 공의를 신뢰하라고 촉구합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앗수르 멸망 전 (주전 약 670년경)	예루살렘 멸망 전	예루살렘 멸망 전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니느웨를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1:7)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아, 잠잠할지어다 (2:20)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3:8), 잠잠할지어다 (1:7)
억압받는 남은 자	의로운 남은 자 (2:4)	겸손한 남은 자 (2:3)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임	하나님께서 나아가 행진하실 것임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임 (3:17)

나훔과 소선지서

소선지서들은 주로 이방 열방을 향한 심판에 집중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열방에 이르는 심판에 집중합니다.

이방 열방을 향한 심판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에 이르는 심판



남은 자 → 교회
신실한 교회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운명을 공유함

언약 백성이 먼저임
하나님은 이방 열강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집을 정결하게 하심

역사를 향한 주권
세상 제국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흥망성쇠함

소선지서

평화의 복음

한 전령이 압제자의 패배를 알리며,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평화의 새 시대를 선포합니다.

제국의 전령들

고대 근동과 로마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가 세계 질서를 뒤바꿈

제국의 파발들이 공식 선포(euangelion)를 제국 전역에 전달함

새로운 가이사가 승리자로 칭송받으며 신의 아들로 불림

제국 통치와 로마의 평화의 새 시대를 선포함

나훔의 복음

나훔 1:15

여호와께서 압제자에게 의로운 언약적 진노를 쏟으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나타남

잔혹한 압제자 니느웨가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침략하지 못함

유다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림

마가복음

마가복음 1: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의 압제를 결정적으로 물리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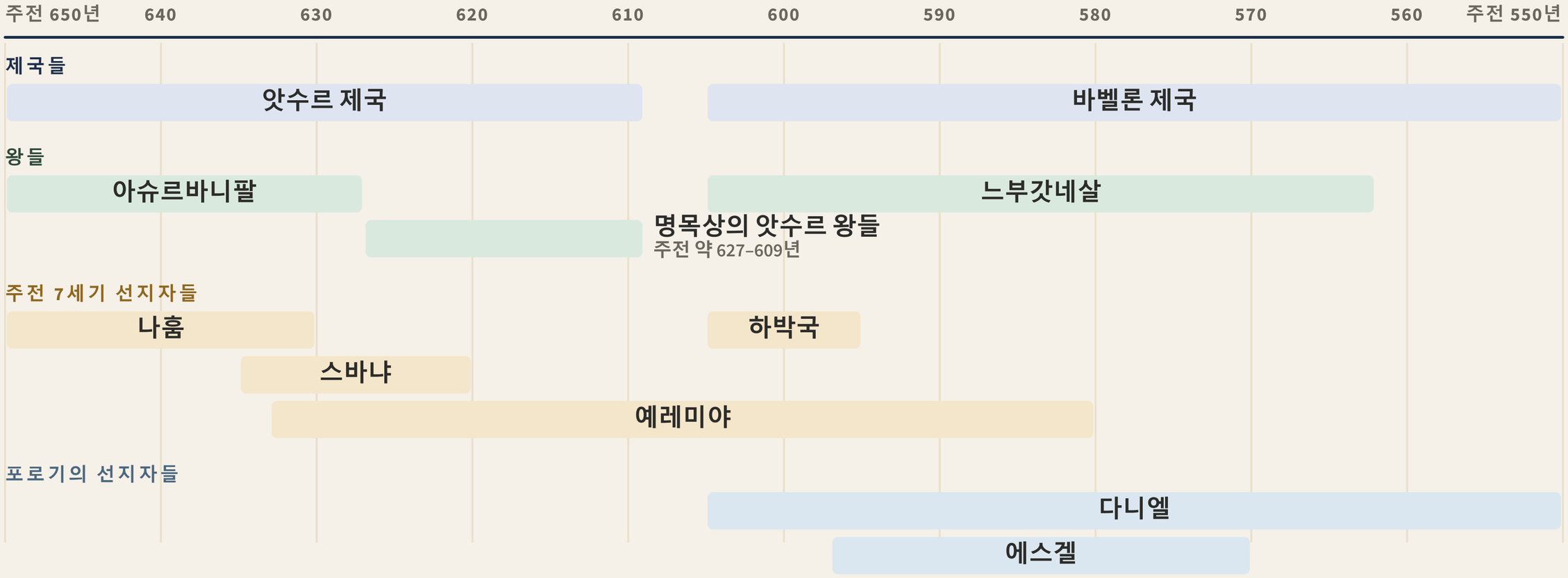
사도들이 만국에 구원의 복된 소식(euangelion)을 선포함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드러나심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해방과 평화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감

주전 7세기 선지자들

주전 7세기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제국의 패권이 앗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사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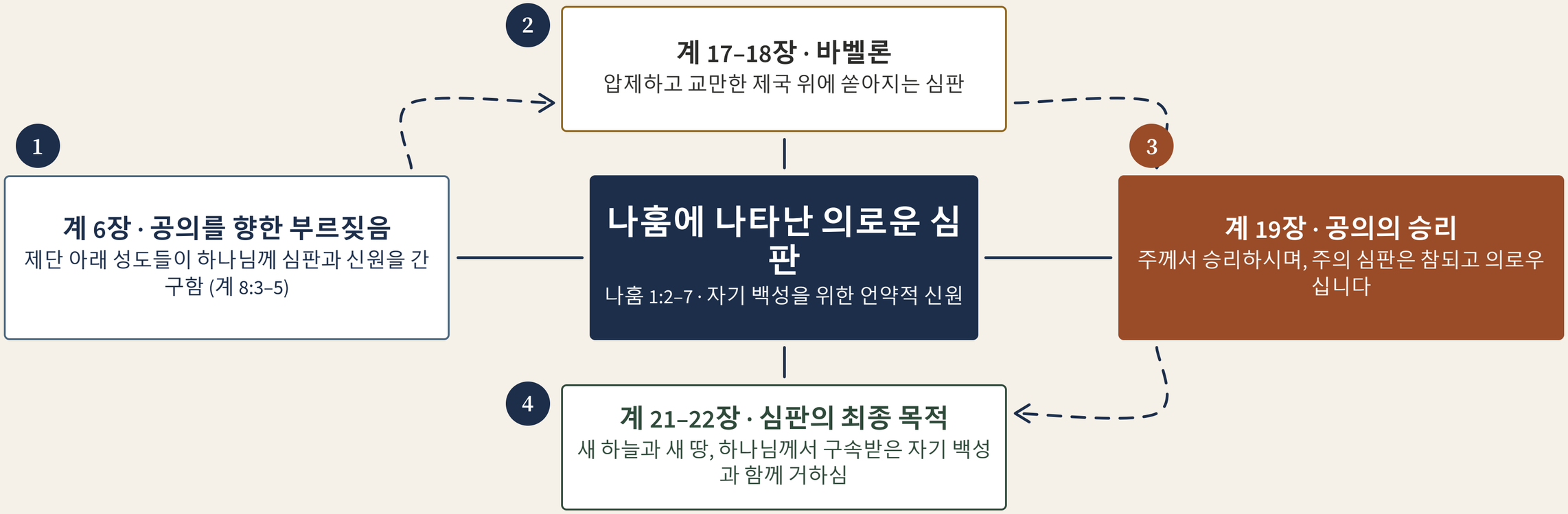


나훔 1:7 · 하박국 1:1–4 · 하박국 1:13 · 스바냐 1:7 · 스바냐 3:8

나훔 · 카탈로그 기초: 나훔과 하박국

나훔과 요한계시록

나훔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공의를 향한 부르짖음부터 최종적인 회복에 이르기까지 펼쳐집니다.



나훔 · 카탈로그 기초: 나훔과 하박국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

주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며 고대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메대 제국 (고레스가 정복, 주전 550년)
- 리디아 제국 (고레스가 정복, 주전 546년)
- 신바벨론 제국 (고레스가 정복, 주전 539년)
- 애굽 영토 (캄비세스 2세가 정복, 주전 525년)
- ⊙ 수도
- • 도시 또는 성읍



표준 성서 지도에 따른 주전 약 550–521년의 국경이며, 고대 국경은 대략적인 것입니다. 지명: OpenBible.info (CC BY 4.0). 해안선, 호수, 강: Natural Earth.

성경 본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